

해외여행자 대상 에이즈 캠페인-김포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에이즈 캠페인-김포 공항에서

협회는 8월 4일 오후 2시부터 김포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캠페인을 벌였다.

협회 부회장 최강원(서울의대 교수), 운영위원장 김준명(연세의대 교수) 박사를 비롯 임직원들과 에이즈 전문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하여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출국하는 해외여행객들에게 약 5천부의 예방안내서를 배포하고 현장상담도 실시했다.

협회는 최근 해외여행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휴가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에이즈 감염과 유입이 크게 우려되어 이같은 계몽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말 보건복지부가

밝힌 우리나라 에이즈감염자 472명 가운데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자 등 56명을 제외한 416명이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중 43.4%인 180명이 국외 이성간의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해외여행 중의 성접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태국은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아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라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 관광지를 많이 찾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예방안내서를 통해 1. 여행 중의 섹스-콘돔만이 유일한 안전 대책이다. 2. 해외에서의 수혈은 가급적 피하라. 3. 주사기나 바늘은 남이 썼던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4. 해외에서의 주사나 수술은 가급적 피할 것 등을 권고했다.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협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동안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양호교사, 청소년지도자, 보건요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상담



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의 유명한 교수들을 강사진으로 한 교육은 1. 에이즈의 역학, 2. 임상증상 및 치료 3. 상담기법 및 실제 4. 정부의 에이즈 관리 현황 5. HIV 감염자의 정신역동학적 특성 6. 에이즈의 경제사회적 영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또 HIV 감염자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통하여 에이즈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서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종합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이수한 양호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은 교내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에이즈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전화자동응답시스템 700-6191 기사화

협회의 에이즈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 7월 16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일간지와 전문지들에 기사화 됐다.

협회는 올해 초부터 번호 700-6191를 통해 ADIS의 실제, 감염경로, 증상, 진단 및 검사, 치료와 관리, 예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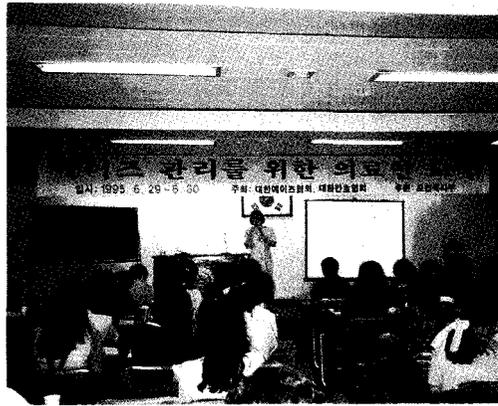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 실시 -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협회는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및 경인지역 교육담당간호사를 대상으로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을 실시했다.

6월 29, 30일 양일간 대한간호협회 5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에이즈 역학 및 관리, 에이즈의 임상증상 및 치료, 에이즈 환자 간호의 실제, 에이즈 예방대책, 법률적 측면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연세대 의무부 총장) 고문은 연세대 알렌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한·미 담배양해특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건배(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 해태그룹 회장) 고문은 한강둔치 망원지에서 "맑은 강, 푸른 눈빛"을 주제로 "제1회 셋강 살리기 이동야영대회 환경보호캠프" 발대식을 가졌다. 전국 5대강 유역의 셋강에서 4일 동안 청소년 9백여명이 참가했다.



이영덕(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고문은 연구원 대강당에서 전 부원장 이기원 교수 정년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강원용(크리스천아카데미 원장) 고문은 이화여대 김영의 연주홀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집(한국청소년연맹 총재) 고문은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일 대학생 2백 41명을 초청, '95 한일청년 친선 교류회를 개최했다.

최영희(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사는 95년도 대표자회의를 KNA연수원에서 개최했다. 또 연수원에 지방의회 간호원 의원당선자 7명을 초청, 축하연을 가졌다. **A**